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남북관계 변화와 과제
[발제자]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일 시] 2022년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YouTube 한선TV 채널



☒ 문자 후원
#7079-4545

제401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 핵 포기가 아니라 핵 보유 목표로 전술적 차원에서 협상에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핵 보유 가능성을 탐색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버티기를 통해 대미 압박과 '새로운 셈법'을 요구했다. 대미 압박 전략 중 하나로 북한은 오미크론 사태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버티면서 자력갱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 군축회담은 가능하겠지만 핵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대해 새로운 제안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대

내적으로는 사상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 김정은은 지금처럼 버티다가 코로나가 줄어들면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으로 경제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관심은 북한의 연명이지 북한의 경제발전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에서 사상무장은 자력갱생의 중요한 축이다. 현재 북한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사태만 보아도 선전선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이나 관료가 객관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북한의 지식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난과 오미크론 사태로 고통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핵 개발과 보유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 남북관계와 국제질서의 변화

- ◆ 2018년과 2022년을 보면 남북 관계가 크게 변했다. 북한의 정책 노선이 바뀌었다.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전환했다. 상징적인 사건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다. 외부로 향한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다. 남한의 지원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력으로 오미크론 사태를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때문에 2022년에 발생한 오미크론 사태에 북한이 남한의 방역물품 지원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 ◆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에 핵 포기가 아니라 핵 보유 목표로 전술적 차원에서 협상에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 보유 가능성을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에서 탐색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버티기를 통해 대미 압박과 ‘새로운 선택법’을 요구했다. 북한은 핵 군축회담은 가능하겠지만 핵 포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미국에 새로운 제안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사상투쟁을 강조하고 있다.
- ◆ 국제질서가 변화되고 있다. 미·중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미·중대립을 어느 범위까지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으나 미국 정부 내 의견은 미·중 관계를 경제전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복잡성이 증가했다. 미·중대립과 미·러 대립은 북한의 외교적 공간을 넓혔다. 미국의 압박에 버틸 수 있는 경제적 공간이 확대 되었다. 반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집중도는 현저히 저하되었다.

◆ 남북관계의 과제

- ◆ 남북 관계는 단기적으로 비핵화, 장기적으로는 통일 또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경험 등의 남북 협력이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비핵화 성공 여부는 남북 관계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비핵화 실패 시 대북 군사적 억지력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고 비핵화 성공 시에도 경험과 통합의 남북 관계가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 ◆ 최적의 대북정책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한다. 평화와 한반도의 바람직한 통합·통일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보수와 진보 모두 실현가능하지 않은 정책을 많이 내세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북 정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으며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렸다. 대북정책은 현미경과 망원경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세히 봐야 한다. 그러면서도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시선으로 담아내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 ◆ 단기적으로 북한이 자력갱생만으로 제재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지 못할 때 협상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자력갱생은 자급자족과 사상무장이다. 북한이 제재 받기 이전에 북한의 무역개방도는 50%였다. 당시 세계 평균 무역개방도가 60%였던 것과 비공식적인 무역까지 생각하면 북한은 한국만큼이나 무역개방도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역개방도가 높은 북한은 자급자족을 고집할수록 경제회복은 떨어지고 경제 충격은 커질 것이다.
- ◆ 김정은은 지금처럼 버티다가 코로나가 줄어들면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무역으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무역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중국이 북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관심은 북한의 연명이지 북한의 경제발전이 아니다. 핵을 가진 북한이 경제까지 좋아지면 중국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준의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 ◆ 사상무장은 자력갱생의 중요한 축이다. 현재 북한에서 발생한 오미크론 사태만 보아도 선진선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이나 관료가 객관적인 지식을 갖게 되면 실효성이 없어진다. 북한의 정보화와 지식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북한주민에게 경제난과 오미크론 사태로 고통받는 이유의 근본이 핵 개발과 보유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따른 경험의 진전

- ◆ 현재 북한 문제를 식당에 비유하면 진보 식당이나 보수식당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메뉴가 하나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 문제는 하나만의 메뉴로 해결할 수 없다. 다양한 메뉴를 엮고 패키지로 만들어야 한다. 정책의 보완성을 고려하여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제재, 경제개발, 평화체제, 역지의 순차·시간 흐름에 따른 시퀀스 전략이 필요하다.

- ◆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가 시작되면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그전에도 제재 완화의 가능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실제적인 제재 완화는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추진할 경우에 해야 한다. 경제 발전은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떨지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평화체제 부분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미국과 북한이 먼저 해결하고 이후 다른 나라가 뒤따르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역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한미군사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고 강화된 동맹체제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해도 군사적으로 우월하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한다.
- ◆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따라 경험 수준을 진전시켜야 한다. 제재 완화, 재제 해제, 개혁·개방의 단계를 통해 북한과의 남북협력을 조절해야 한다.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인도적 지원, 산림 사업, 경험 방안 예비조사, 사회, 문화, 스포츠 교류 정도가 적당하다. 이후 실제 경험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라 재제가 완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북한은 재제가 완화되면 그 범위 내에서 무역 및 투자와 기술협력, 그리고 특구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결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정부가 보증하는 인프라 사업이나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사업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남북 간 협력이 보다 진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먼저 북한 경제가 바뀔 수 있도록 북한 근로자 임금을 정부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스마트 경험과 같은 변형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지 않으면 북한에 큰 자본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면 북한 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북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진출과 북한 기업의 사회화까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단계가 되면 남북 경제는 통합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